

慶州鮑石亭의

名稱과 實物

洪 思 俊

慶州市에서 西南方(月城郡內南面拜里) 4km餘에 있는 統一新羅時代의 遺蹟으로 傳하는 鮑石亭址가 있음. 이 亭子가 創建된 年代에 對해서는 記錄이 없어 不明하다. 新羅第四十九代 憲康王 五年(A·D 八七九年) 三月에 鮑石亭에 王이 幸行한 記錄이 三國史記와 三國遺事處容郎 望海寺條에 처음 보임에서 소왕代이거나 그前王인 景文王代에 建立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憲康王六年條를 보면 九月九日에 王이 左右臣僚와 月上樓에 올라서서 四方을 둘러볼적에 徐羅伐 民家가 相屬되었고 歌吹소리가 연달아 나니 王이 侍中敏恭을 보고 묻기를 내가 들으니 지금 民間에서는 지붕을 기와로 해 있고 茅(茅)로 잇지 않으며 炊飯하는 데도 炭으로 하고 薪(薪)을 때지 않는다니 事實이 그러한가 하니 敏恭 대답이 亦是 그러한 줄로 들었다는 것이라면 이러한 餘裕 있는 民間生活이었고 소왕이 臨海殿에서 宴會를 하는(소왕七年三月) 泰平世代라 할진대 鮑石亭은 王家가 潤澤한 生活의 所産이라 보고 憲康王代에 唐에서 그 制度를 輸入하여 慶州南山西麓에 後宮(離宮) 苑內에 遊宴의 場所로서 鮑石亭을 結構하였던 것으로 推測하여서 過言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 鮑石亭에 對한 傳說을 들어 보면 曲水에 流觴하여서 王과 大臣들이 次第로 떠내려 오는 酒盃가 各自 앞에는 臨하면 詩한 首를 읊고 술을 마시었다고 하는 것이다. 傳說에 詩한 首에 酒一杯를 마시었다는 것과 三國史記와 遺

事에 記錄된 遊宴事를 생각할적에 때에 따라서 詠詩 飲酒가 있을 수도 있고 歌舞 歡樂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들 行事에서 果然 鮑石亭에서 詩人과 樂士들의 配列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記錄이나 口碑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現 鮑石亭의 石渠內圓과 外圓의 形態를 보면 內圓은 舞臺 같고 外圓은 觀席 같은 印象이어서 歌聲과 樂音이 外側圓에서는 바랄 수 없고 鮑形 圓圓이 舞臺가 아니었던가 史料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曲水流觴은 어느 때에 始源하였던 것인가. 記錄上으로 보면 中國東晉 穆帝永和九年(A·D·三五三年) 暮三月三日에 當時名士 四十一人 이 會稽山北쪽의 蘭亭(浙江省紹興縣西南二十七支那里에 있다)에서 會集하고 曲水에 流觴하며 祓禊를 修行하고서 모두 詩를 지었는데 名筆王羲之가 蘭亭會記에 序한 蘭亭集序의 流觴曲水한 것이 처음 보인다. 그런데 東晉의 蘭亭이 自然의 山水를 利用한듯 그 蘭亭集序中에서는 아래와 같은 文句가 있다.

이곳에는 높은 산 큰 고개에는 숲이 우거졌고 대나무가 있으며 맑은 냇물이 흐르되 激湍에는 左右山들이 反映하는데 물결을 引水해서 流觴曲水를 만들다 라는

此地有崇山峻嶺茂林修行又有清流激湍映帶左右引以爲流觴曲水

記錄이라면 慶州의 統一新羅時代 鮑石亭은 人工的인 流觴曲水라 하겠다.

한편 清末宣統帝의 叔父傳裕가 來韓하였을 적이다. 慶州古蹟을 둘러 보는중에 鮑石亭址를 보고 北京에 있는 曲水流觴을 생각하고 古물을 지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淸時代에도 이와 같은 宮苑內에 架構가 있음을 알겠다.

그런데 이 鮑石亭遺址는 統一新羅가 滅亡한 以後 千有餘年間을 放置하는데서 水路의 曲水이 部分的으로 散逸되고 또는 水注하던 龜形石도 亡失되어서 當時 全貌를 仔細히 살펴볼 수 없는 것이다.

一九一六年度(大正五年)古蹟圖譜 鮑石亭廢址의 寫眞을 보면 吞水路 側壁石六個에서 左右側二個石과 吐水路側壁石四個中 右岸一個石이 없었고 또는 水注하던 龜形石도 없다(傳言에 安東崔某가 運搬云)。其後 日政時에 改修築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修築時에 舊石材들의 順次를 無視하고 任意로 異動하였거나 新造石을 插入하는데서 現在 水路曲形이 原狀의 것이 아닐 뿐더러 舊石材를 제 位置에 놓지 않고 修理時 다시 맞추되 場所에 따라서 깨뜨린 舊石材도 있는 것이라 하겠다. 첫째 鮑石亭址實測圖(別紙)에서 보면 A, B, C 石이 新造한 것이 分명한 것은 圖譜 鮑石亭址圖面에는 脫落하여 있음에서 暗示리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實測圖에 A 石과 B 石을 新造插入할 때에 吞水路曲線에만 留意하였고 吐水路曲形에는 注意하지 못함에서 現在와 같이 點線(圖面參照) 內曲石(鮑形을 十二個石으로 된 橢圓)과 吞吐二個石의 A, B 外周石 接續點이 不合理할 뿐 아니라 吐水路에는 角形(內周石과 吐水右外周石)이 되었고 또는 A 石과 B 石의 外側 平行線의 接續面이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圖譜寫眞에는 二個石으로 吐水路北曲岸이 되었는데 日政時 修理時에 다른 (F) 古石材를 移動使用하는데서 點線外의 突出部가 생기고 H 石外側 平行編帶가 (F) 石外側 平行帶와 連續하여야 할 것이 (F) 石端까지 平行帶가 생기게 됨을 보겠고 그리하여 流水曲線이 또한 自然스럽지 못하게 되었으며 또는 (E) 石材도 제 位置에 놓이지 않은 關係로 隣接石과 맞추기 爲해 石頭를 때어낸 흔적이 있다. 그리됨에 內側曲石과 外側曲石이 不合理한데서 流路渠가 自然스럽지 못하다. 또한 곳의 不自然한 流水渠가 있으니 內周 十二個石으로 築造된 橢圓中에 東部와 西部에는 內曲部가 가장 甚한 處中에서 西部의 曲石對岸外壁의 (G) 石(D) 石이 連結된 部分이 內側曲石의 曲周에 比하여 外側石列이 너무

나 밋밋하다. 다른 曲石部分을 보면 內曲部와 外曲部가 어느 程度로 ใกล้เคียง 同一 曲形을 이루고 있음을 볼적에 日政時 修築에서 이곳에 쓰이던 石材를 다른곳에 使用하고 다시 이곳에 新造하였거나 다른 舊石材로 D 石을 插入한듯 하다. 만일 (G) 石과 (D) 石이 있는 場所에 (E) 石과 (F) 石을 接續시키어 놓는다면 內側曲石과 外側曲石이 어느 程度로 自然스러운 流渠를 이루게 되어서 原形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D) 石은 부질없는 新造插入이라 하겠고 同時에 (G) 石 (E) 石은 點線表示한 流曲에 맞게 되어서 內周石과 外周石이 얼맞는 舊原形에 가까우게 原狀을 찾으리라 생각되는 것이다.

한편 實測圖面을 보면 鮑石亭의 內側橢圓曲形(十二個石)은 本是水平地上에 設計한 것이나 流路는 水勢를 따라서 下流에 이르기까지의 流差가 있던 것으로 現在(日政時修理)의 流水差를 보면 石槽內底를 一〇〇으로 하면 吞水路와 接續된 石槽注口는 一〇〇·〇八로 八cm가 높으며 吞水路의 始入口는 九九·九七로 三cm가 낮고 吞水路의 末은 九九·七五로 二五cm가 낮아서 相當한 流勢로 물이 흐르게 되며 鮑石周를 흐르는 曲路水底는 다시 더 底下되어 九九·七一 즉 二九cm가 되었다가 鮑石北부에 이르러서는 九九·七〇 즉 三〇cm로 一cm差가 있고 그 아래에 九九·六七 즉 三三cm 또는 그아래로 九九·六一 즉 三八cm로 지속되다가 吐水路에 이르러서 다시 더 底下되어 九九·六〇 즉 四〇cm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石槽內底에서 볼적에 吐水路底面과는 四〇cm의 流差를 내고 있으나 그러나 鮑石의 橢圓周에서 보면 九九·七一(流入口)과 九九·六〇(流出渠)과의 流差는 一cm가 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鮑石橢圓의 西部는 九九·七一 北部는 九九·七〇으로 一cm差 北部東은 九九·六七로 九九·七〇에 比해서 三cm差 東部는 九九·六三, 九九·六七에 比해서 四cm差 吐水底面 九九·六〇은 九九·六一에 比해 二cm差가 있어서 流水落差가 均一하지 못한것은 日政時에 修理가 均衡流差를 잡지 못한 것으로 본다.

또한 龜形石의 口에서 吐水한 流水를 現圓形一個石槽에 注入하였

다는傳言인데 圓形石槽의 水出口와 吞水石渠와의 現狀을 볼적에 兩個石의 接續한 것이 現在로 보아서 未完成된 點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石龜口가 圓形石槽內面에 直接이어졌다고 한다면 問題가 다르겠으나 龜石口에서 吐水한 물이 圓形石槽에 떨어지게 되었다면 落水時에 水沫의 石槽 및 石渠外로 튀어나갈點을 考慮해서 當時에는 圓形石槽와 吞水渠와의 間地에는 水沫이 外散함을 防止하던 施設이 반드시 設置되어야 하겠고 現在 圓形石槽와 吞水渠間의 形態를 보더라도 무슨 遮水裝置가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리고 傳言과 같이 石龜口에서 물이나와 石渠에 흘러보내여 그 물에 酒杯를 띄웠다 할적에 생각할점은 石渠內의 滿水線(左右兩側壁上端까지 물이 가득히 채워져서 흘러서 泛杯가 可能할 것은 當然한 일이다。 그런데 石龜口에서 얼마나 水量을 吐하게 하는 龜口일지 現物이 없어 보지 못한 現今에 와서 그 裝置에 曰可曰否를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鮑形石造物을 보고 石龜를 想像한다면 大體 큰 石龜가 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다면 石龜의 吐水量도 그에 따라서 대단한 것이 아닐것인데 이 石渠에 적은 水量을 流出한것과 그 물은 곧 下流로 흘러내려서 酒杯를 띄우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라고 보면 泛杯에 詩作을 하였다고 하는 傳言은 거짓말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에 對한 考察을 할적에 泛杯作 詩를 하며 宴會를 王家에서 設宴한 날에는 미리 石渠의 吐水末端에는 보이지 않은 물턱(遮水器)을 만들어 두어서 물이 石渠內에 滿水하도록 貯水하였으리라 본다。 그렇게 裝置하지 않고서는 泛杯가 不可能하며 그리고 滿水로 因한 流速도 느리게 되어서 流觴曲水의 鮑石亭이 제구실을 하였으리라 하고 생각됨에서 遮水裝置가 반드시 있을 것을 알겠는데 지금 石渠末端 吐水口에는 그러한 裝置物을 設置하였던 痕迹을 볼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鮑石亭石渠에 流水路全般에 對한 石工의 治石現況을 살펴보면 精密한 돌다듬이를 하였다。 그러나 圓形石槽內에 落水하던 內曲面의 治石한것을 보면 石渠兩岸의 治石과는 比較가 안되리만치 거칠다。

姑意로 어떠한 意圖下에 거칠게 治石한 것일지 또는 後人이 補修한 것이 그와 같은 거친 治石으로 補修한 것인지 判別할수 없다 그러나 筆者 생각에는 石槽圓周幅을 治石한 솜씨와 石渠兩岸治石한 솜씨가 同一한 石工의 솜씨로 보았고 鮑石亭을 創建할 때의 石槽로 보는 同時에 圓形石槽內面이 凸凹面이 있게 함에는 當時 新羅人이 무엇을 聯想하고 意識的으로 그와같이 造作하였으리라고 보는 편이 妥當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三

鮑石亭이 鮑魚와 龜形石으로 構成한 水中動物을 地上에 表現한 印象을 주게되나 한편 視角을 달리한 생각을 하게 되면 鮑魚形으로된 그 自體가 마치 女性의 胞宮을 聯想하게 되었고 거북의 입에서 물은 吐하였다는 龜頭를 생각할적에 胞宮을 女根 龜頭는 男根이 되어서 陰陽의 理를 流觴曲水에 다가 適用시키지 아니하였나하는 推測도 하게되는 것이다。 물을 吐하는 石龜, 吐水를 받는 圓形石槽內面이 또한 凸凹하게 治石한點, 吞水路石渠와 吐水路石渠와의 그 空地의 相距가 둘(二)한장 幅으로 隔해 있는 形態, 더구나 吞水路와 吐水路間內에 槐木이 심어 있다는 것(新羅時代에도 있었다고 분) 등을 볼적에 陰陽의 關係를 聯想하지 않을수 없다。 한편 現名稱 鮑石亭은 表面上의 名稱과 裏面에는 胞石이 아니던가 推測되는 것이다。 한편 母字의 古篆字가 㒺 形像으로 되어 女根의 胞內에 子를 한 것을 보더라도 鮑石의 胞는 胞를 상징한 것으로 보겠다 泰平威代를 衢歌하고 無事한 餘暇에 遊宴을 하던 後宮苑內에 이와같은 歡樂施設이 있게된 것은 古代의 王으로서 있을법한 設置物이라 하겠다。

古代에서는 男女根을 崇信하는 風俗이 遺物로 남아있어서 男女形岩에 돌을던져서 男女兒生産을 占치고 豊凶의 年事를 고싸움(술다리기 一種)에서 찾았었고 더우기 三國遺事 德萬(善德女王)의 機智三事に 나오는

女根谷 玉門池等은 女根을 爲主로 한 山名池名이라 하겠다. 또한 新羅 土器中에는 男女性根을 表現한 人物도 있어서 興味있는 當時의 風習이 秘在하고 있다 하겠다.

四

다음에 이 鮑石亭에서 發生하였던 記錄을 三國史記와 遺事에서 살피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憲康王五年 三月에 王이 國東의 州郡을 巡察할 적에 어디서 따라온지 알 수 없는 四人이 御駕앞에 나타나서 歌舞를 하는데 그 形容이 可駭하고 衣巾이 詭異함에서 時人들이 山海精靈이라 하였다(古記에는 소주王即位元年事라 함)는 것인데 遺事 處容郎望海寺條에서는 좀더 神秘한 內容으로 되었다. 憲康王이 鮑石亭에 幸行하니 南山神이 御前에 나타나서 춤을 추는데 左右臣僚들은 보이지 않으나 王만이 볼 수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王이 自作舞를 하여 사람이 볼 수 있을 뿐이다. 神의 이름을 祥審이라 하였고 지금도 國人이 이 춤을 傳하며 御舞祥審 或은 御舞山神 既神出舞하여 祥審의 貌形을 命工摹刻해서 後代까지 보였고 象審 或은 霜髯舞라稱함은 그 形象에서 오는 名稱이라 하였다.

다음은 眞聖女王代에 孝宗郎이 南山鮑石亭에서 遊宴할 적이다. 門客들이 星火같이 달려왔는데도 두 門客만은 뒤에 떠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孝宗郎이 두 門客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하는 말에 芬皇寺 東쪽 마을에 處女가 사는데 二十前後한 나이에 盲母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므로 洞里 사람에게 물으니 이 處女집은 貧困하여 얻어먹으면서 養母하기를 有年인데 마침 凶年을 당하여 生活을 할 수가 없어서 他家에서 贖價으로 三十石穀食을 얻어오고 大家에 얹혀 일을 보살피우고는 날이 저물면 자루팔을 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지어먹고 盲母와 같이 자다가 새벽에는 大家에 가서 일을 보살핀다. 이러하기를 數日하는데 盲母말에 옛날에는 糠粃라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였으나 近日에 와서는 香杭이라 할지라도 膈

肝이 찢는 듯하여 마음이 不便하니 무슨 까닭이냐 하니 處女가 그 事實을 말하니 에미는 痛哭을 하고 處女는 嘆息하면서 口腹의 養母는 色難을 입었음으로 서로 붙잡고 운다는 이것을 보고 오는 데서 늦었다고 하였다. 孝宗郎이 이 말을 듣고 쓸쓸한 얼굴을 짓고는 穀食一百斛을 보내고 孝宗郎父母도 衣袴一襲을 보내게 되며 郎徒千名이 歛租一千石을 만들어 보냈다. 이 사실이 王에게 들리자 때에 眞聖王이 곡식五百石과 집 한채를 주고 兵卒로 하여금 그 집을 지키어 劫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洞리를 孝養里라稱하고 後에는 그 집을 寺院으로 하되 兩尊寺라名稱하였다는 것이다.

끝으로 統一新羅의 社稷이 기울어질 時期이다. 景哀王四年(A·D·九三七年) 겨울十一月(三國史記에는十一月其他文獻에는十月)에 後百濟王 甄萱이 當時 新羅王京(慶州)에 掩襲할 적이다. 景哀王이 妃嬪과 宗戚들이 鮑石亭을 놀이를 할 적에 賊兵이 쳐들어오는 것도 모르다가 倉卒間에 어찌 할바를 몰랐다. 王과 妃는 後宮으로 도망치고 宗戚과 公卿大夫나 士女들은 四方으로 도망치다가 甄萱賊兵에게 붙잡혀서 貴賤이 없이 다들 놀랜 맘으로 匍匐하며 奴僕이 되더라도 生命만은 살리라는 것이었다. 甄萱은 또다시 兵卒을 풀어 놓아서 公私財物들을 剽掠하고 王이 도망간 宮闕로 들어가서는 左右로 王을 牽出했는데 王과 妃妾 數人이 後宮에 있음으로 軍中에 끌어내어 王에게는 自盡을 하게 하고 王妃를 強淫하며 아래 軍兵에게는 그 妃妾을 亂行시키었다는 三國史記와 遺事(金傳大王條)이다. 統一新羅의 鮑石亭은 妃嬪이 居處하던 後宮의 一部 즉 離宮 遊園地로서 新羅國의 中國의 그와같은 流觴曲水를 模倣하여 만든 亭址인 것은 누구나 認識하는 것이다. 특히 그名稱은 鮑魚(진분)形을 한 데서 創名되었다는 東國輿地勝覽慶州條 鮑石亭의 解說이다. 그리고 鮑石亭에서 新羅社稷이 무너지진 것에 對하여 當時事를 後人들 詩客이 吟咏한 漢詩가 많이 있고 특히 景哀王이 美人과 더불어 鮑石亭노래에 奏樂한 繁華之曲(東京通志參照)이라 하는 게 있어서 漢詩 몇首와 歌辭를 紹介하고자 한다. 繁華之曲이란 아래와 같은 男女相悅을 意味한 曲같다.

祇園寺여 實際寺여 두절이東西해 있고 소나무 잣나무는 서로 의지
함이어 냉대미골 中이로다.

머리돌려 바라보니 꽃들은 언덕에 滿開한데
안개와 구름은 서로 얽혀서 몽롱하구나

祇園實際前 年寺東西

松栢相倚前 墓洞中

回首一望前 花滿開

細霧輕雲前 并朦朧

다음은 曹偉의 詩인데 너무나 當時 광경을 보는 듯한 感을 주는 처절한
詩이며 同時에 後人을 警戒하는 詩이기도 하다.

맑은 시내 한줄기 얽히어 흘러돌고

쓸쓸한 골짜기는 흰하게 터졌고나

鮑石亭 돌들은 시냇가에 흩어져있고

늦봄에 옛뜰에는 이끼만 끼었더라.

新羅王은 옛날에 治政萬機를 싫어하고

호사로운 玉輦이 이곳을 徘徊하여라

흐름을 따라 이곳에서 맑음을 희롱

羽觴은 뜨고며서 물결따라 오는구나

上監과 臣下가 노래에 醉하고 술에 醉했는데

동수와 북장단소리는 땅을 울리되 春雷같구나

敵兵이 心腹까지 드는줄 모르고서

白日에 鐵騎는 소리없이 엄습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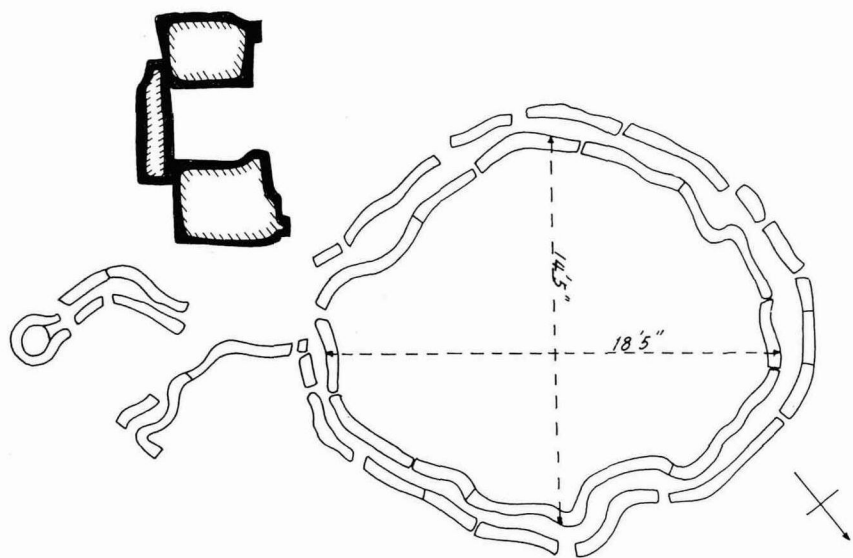
의를 본 宮庭인을 차마 말하리

倉皇히 朝市에는 塵埃만 나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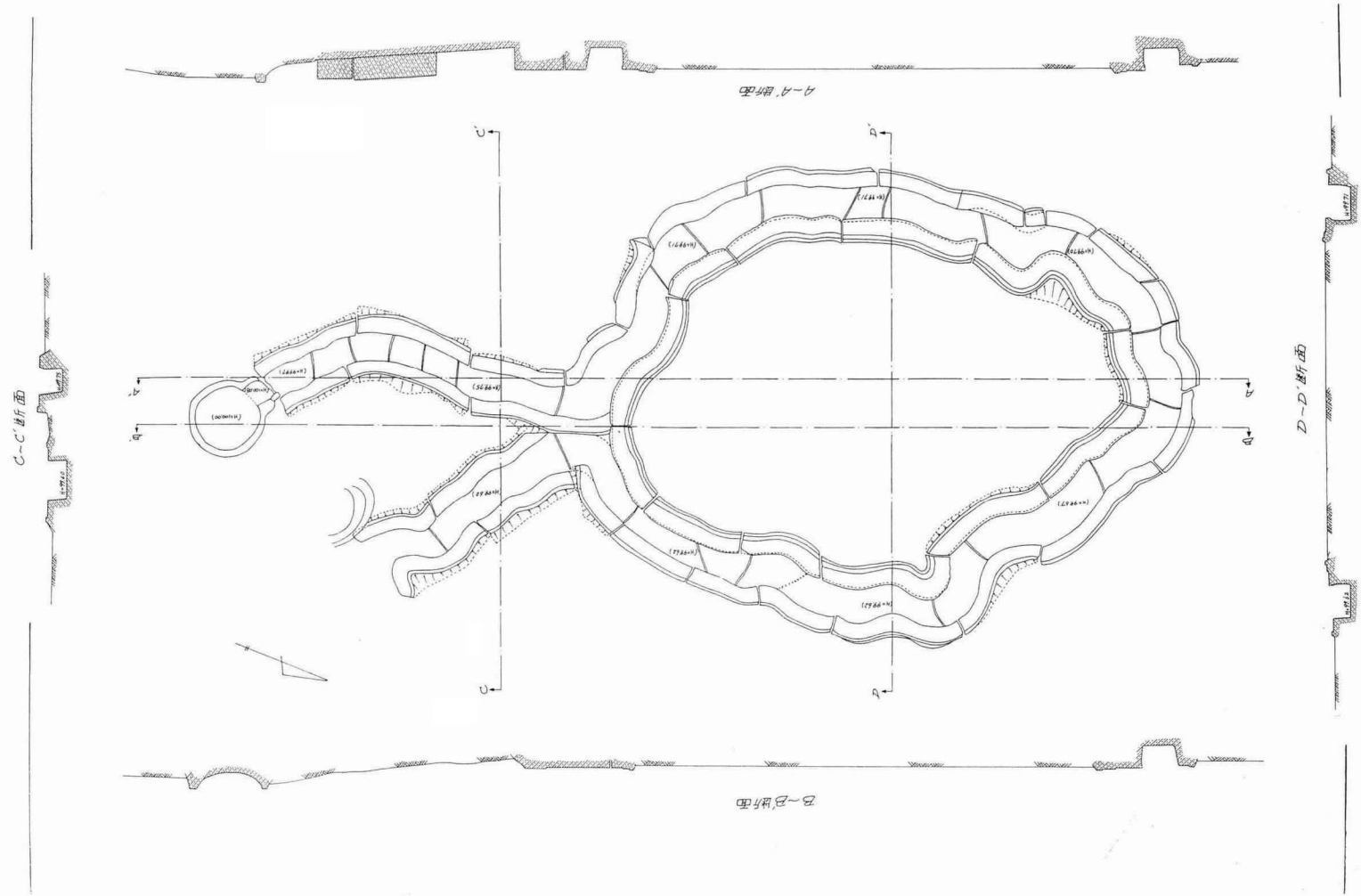
宮女들은 宛然히 賊軍앞에 울고

머리에 꽃았던 비녀는 풀숲에 덩굴었네

蟹目嶺(景哀王葬地) 위에서는 愁雲이 떠돌고



鮑石亭廢址鮑石略圖



慶州 鮑石亭址實測圖

술바람 소리에 도 千年시름 끼었고나

그대여 春閣에 슬취하였음을 못보았나

門밖에 韓將軍이 있음을 아지 못했더냐

호화스런 碧月에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江南의 新羅王國은 연기같이 사라져라

앞수레는 뒷수레의 경계할 바 되나니

뒷수레는 따라서 覆轍되더라

願하노니 天公은 鬼守케 하사

길이남겨 後人으로 此石을 거울삼자

清溪一派流縈回 荒涼洞壑迤邐開

鮑魚散落溪水側 春殘石老生蒼苔

羅王昔日厭萬機 金輿玉輦長徘徊

流連此地弄清泚 羽觴泛泛隨波來

君臣酣歌入醉鄉 簫鼓動地如春雷

不悟敵兵入心腹 白日鐵騎潛銜枚

蹀血宮庭那忍說 倉皇朝市飛塵埃

宮娥宛轉啼軍前 寶鈿零落委草萊

蟹目嶺上愁雲凝 松聲尙帶千年哀

君不見臨春閣中醉醺醺 不知門外韓將軍

玉樹碧月歌未闕 江南王業隨煙滅

前車可爲後車戒 後車相尋迷覆轍

我願天公令鬼守 留與後人鑑此石

五

지금까지 新羅王家에서 後宮에 設置한 鮑石亭에 對하여 流觴曲水の
始源을 試圖하여 보았고 乃至 鮑石名稱에서 鮑石實物에서 얻어진 形態
가 胞宮과 治似한 點을 들었고 景哀王이 遊宴할적에 繁華之曲도 있었다

는 것과 新羅社稷이 이 亭子에서 遊宴의 極에서 後百濟甄萱에게 一擊을
당함에서 國運이 기울고 後人들이 詩로써 當時事를 거울삼으라는 警句
도 실어보았다. 한편 最初에 鮑石亭을 建設할적에는 그 意圖한 바가 山
川景觀의 自然을 사랑하고 國家奉安을 爲한 國王의 心身을 休息하던 後
宮亭子이던 것이지만 그 意圖한 뜻을 後王이 忘覺한 데서 國運을 기울
이게 하였던 不幸을 痛恨하여서 잊지 못할 恥辱的 鮑石亭이 되었다고 하
겠다. (一九七四·八·一一)

(충청남도 문화재 전문위원)